

I.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혁준입니다.

먼저, 힘든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낸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민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I. 총 평

1. 개괄적 평가

- ① 우선 금년 민법 시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및 강의시간에 누차 강조하고 짚어드렸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간혹 지엽적이고 생소한 판례도 나왔지만 정답을 결정하는 데에 일체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5가지 지문 중에서 정답지문을 명확히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가 대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문이 매우 길어서 시간안배에 실수할 수 있었는데, 형식적으로나마 시간이 20분 더 늘어났다는 점과 이미 지문이 길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이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문을 포인트별 패턴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이 없었다면 매우 난감했었을 것임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 ② 금년 시험은 2019년 시험과 동일하게 또한 2021년 시험과 비슷하게 Box형 문제(1문제)와 사례형 문제(2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였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출제될 것은 이미 예상하였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고, 또한 전범위 모의고사에도 출제하여 연습시킨 바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③ 결론적으로 말해 합격권 내에 있는 수험생들 간에는 크게 변별력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더 쉽게 대처했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위 ①, ②에서 언급한 사정과 실제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 및 시험장에서는 항상 실수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작년에는 8문제 정도 틀리는 것이 합격선이라면, 금년에는 40문제 중 6문제 정도 틀리는 것으로 합격선이 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개별적 평가 및 예상

(1) 주제별 전체적 평가

- ① 금년 시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A급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되, 조문의 비중은 낮아지고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판례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A급 이상의 판례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200개 지문 중 대략 11개 정도였습니다.
- ②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제도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각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작년보다 현저히 줄었는데, 대략 3문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민법의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기 보다는 대체로 각 주제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묻는 것에 그쳤다고 보이며, 이러한 면에서도 변별력은 크게 높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 ③ 다만 소송법적 사고가 있어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3개 정도 출제되었는데, 예컨대 소취하합의, 기관력,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취하합의와 착오취소 관련 지문을 제외하고는 정답 선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

(2) 영역별 평가

- ① 작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사례형
9문제	13문제	11문제	6문제	1문제

② 이와 달리 금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사례형
6문제	19문제	10문제	5문제	3문제

작년에 비해 Box형·사례형 문제가 2문제 더 출제되었고, 영역별로는 민총에서의 문항수가 줄어든 반면 채권법에서 더 많은 문항수가 출제되었습니다.

(3) 문제 내지 지문의 구성면에서의 평가

1) 조문과 판례의 비중 등

조문의 비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낮아지고, 판례가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200개 지문 중 대략 11개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문의 길이는 길었으나 이는 매년 같은 현상이었고, 이런 현상은 이미 고착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습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훈련이 되었어야 했고, 시간이 부족했다면 실력이 부족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평소 처음부터 판결요지를 볼 때 중간을 생략하는 식으로 보면서 공부했다면 그만큼 대처하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판결요지를 볼 때 일단 판례의 전체적인 논리 흐름을 살피면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판례의 키워드나 핵심 문장 등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으로 판결요지가 읽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 1차 시험을 위해서도 수험생은 조문으로 시작해서 판례의 키워드나 핵심 요지를 최대한 이해하고 정리하여, 포인트별 패턴식으로 지문을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고 가장 현명한 수험방식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2) 영역별 주제(쟁점)의 구성 - 중요주제(쟁점)별 개괄적 제시

민 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법인사단 ▶ 물건 ▶ 의사표시 ▶ 대리 ▶ 유동적 무효 ▶ 소멸시효
채권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 ▶ 과실상계·손해배상 ▶ 채권자대위권 ▶ 채권양도 ▶ 대위변제 ▶ 상계 ▶ 각종 채권소멸 사유 - 경계, 공탁 ▶ 다수당사자 채권·채무관계 (2문제)
채권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성립 일반 ▶ 동시이행 항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 ▶ 매매 일반과 담보책임 (2문제) ▶ 민법상 임대차와 주임법 (2문제) ▶ 도급 ▶ 조합 ▶ 부당이득
물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 일반 - 등기청구권 등 ▶ 등기의 추정력 ▶ 주위토지통행권 ▶ 공유 ▶ 명의신탁 ▶ 분묘기지권 ▶ 유치권 ▶ 질권 ▶ 근저당 ▶ 가등기담보
가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2문제) ▶ 입양 ▶ 상속의 승인 ▶ 유류분

이렇듯 각 영역별 중요한 주제나 쟁점에 대해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거의 매년 출제되었던 주제, 예컨대 채권자취소권이나 취득시효, 법정지상권 등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Box형·사례형 문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문제는 앞으로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Ⅲ. 글을 마무리하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험의 당락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험생 모두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므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보다 알찬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시험이 1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이든 예상되는 컷트라인 근처라서 매우 불안하든, 발표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내년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의 여신을 붙잡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여신의 뒷모습만 보지 않기를 바라며, 긴 한숨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잘 헤쳐 나왔던 여러분이기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혁준 올림